

뉴스-여론-현실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의 역동적 의제설정 과정

: 한국 경제이슈에 대한 시계열 분석, 1998-2005

이 완 수*

<논 문 요 약>

한국 경제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다룬 이 연구는 네 가지 큰 그림을 살펴보고자 시도됐다. 첫째는 국내 경제뉴스의 보도경향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둘째는 국내 경제뉴스가 국민의 주관적인 경제현실 인식과 객관적인 경제상황에 어떻게 의제설정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는 국내 경제뉴스가 정치지형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에 대한 국민인식과 실제 경제상황이 정치지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계량경제학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시계열의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사용해 실시된 이 연구는 경제뉴스, 주관적인 경제평가, 객관적인 경제상황 그리고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역동적 의제설정 경로와 효과발생 시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경제뉴스의 보도 속성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다”는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 부정적인 속성의 경제기사가 긍정적인 속성의 경제기사보다 많았다. 둘째, “국내 TV방송은 신문 보다 경제뉴스를 더 부정적인 속성으로 보도 한다”는 가정에 대한 검정에서는 신문이 방송에 비해 보다 부정적인 속성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부정적인 속성의 경제뉴스는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에 대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에서는 부정적인 경제뉴스 논조가 대통령 지지도를 통제하고도 미래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반해 “부정적인 경제뉴스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예측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설정 효과가 정부(regime)의 정치경제 지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겪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미디어가 국민의 경제인식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런데 반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뉴스 논조와 보도양이 국민의 미래 경제상황 평가는 물론 현재 경제상황 평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넷째, “부정적인 속성의 경제뉴스는 현재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에 대한 인과 검정에서는 경제뉴스가 사람들의 경제인식을 넘어 전반적으로 경제현실에도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경제뉴스 논조와 보도양이 현재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러나 “부정적인 속성의 경제뉴스는 미래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경제뉴스와 경제상황 간의 이런 인과관계는 정부별로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우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경제뉴스가 보도된 지 정확히 3개월 후에 현재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경제뉴스가 미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거꾸로 경기선행지수가 경제뉴스 논조와 보도양에 영향을 주는 ‘역효과(reverse effects)’가 발견됐다.

다섯째, “부정적인 속성의 경제뉴스는 대통령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에 대해 그랜저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부정적인 속성의 경제뉴스 논조가 대통령 지지도와는 무관했다. 즉, 한국에서는 미디어가 경제뉴스를 어떤 관점에서 보도하는가 하는 사실과, 대통령 지지도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부정적인 경제뉴스 보도양은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 평가와 현재 경제상황을 통제한 뒤에서도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부정적인 뉴스의 보도양이 늘어나면 1개월쯤 후에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반대로 부정적인 경제뉴스 보도양이 줄어들면 1개월쯤 후에 대통령 지지도가 내려가는 ‘의사 상관관계(spurious relationship)’가 발견됐다.

이런 결과는 부정적인 경제뉴스 보도양 증감이 대통령 지지도와 정적인 관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섯째, 국민의 경제인식과 대통령 평가 간의 상호 인과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무관하게 나타났다. 먼저 “미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대통령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에 대한 추정결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대통령 평가 간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다. 이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국민의 경제심리가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적 지지 효과(economic approval effects)’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 평가’가 대통령 지지여부의 예측 변수가 되진 못했으나, 예외적으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 인식’이 대통령 평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런 결과는 노무현 정부에 국한된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앞으로의 경제에 대한 기대감 보다 현재 경제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대통령 평가는 나빠진다”는 연구가설은 전체기간은 물론 정부별로도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즉, 현재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는 물론 미래의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모두 대통령 평가와 무관했다.